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08년 12월 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컬럼 :

나눔과 섬김으로서의 복지



인터뷰 :

인천사랑의공동모금회 김민기 회장과의 만남



I/D/I/소/식



인천발전연구원-인천문화재단 협약식
우리 연구원이 인천문화재단과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양 ...

행/사/정/보



다양한 현안과제에 관한 행사정보
◆[행사] 2009년 대내외 경제전망 세미나(12.1): 대한상공회의소...

Zoom INcheon



12월의 인천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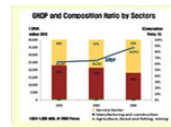
인천항 개항 5년만에 만들어진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한미수교 100주년...

도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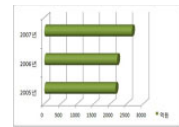
방치된 항구에서 세계 3대 미항으로 변모한 시드니 달링하버
달링하버는 상업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복합 단지가 갖는 다양한 특성을 살려...

IDI연구



인천지역 산업구조 특성과 산업연관분석
급변하는 대내외적인 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바람직한 지역경제...

인천지표



지표를 통해 본 인천 : 나눔 분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사업실적을 살펴보면, 2007년 총 모금액은 약...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08년 12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나눔과 섬김으로서의 복지

김성철 교수(재능대학교 실버케어복지과)



나눔과 섬김으로서의 복지

김 성 철 교수 재능대학교 실버케어복지과

사람에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만나면 편하고 행복하고, 기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산소 같은 사람이다. 반면에 만나면 부담되고 힘들고 짜증나고 불평을 듣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이산화탄소 같은 사람이다.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은 사랑이란 상대방의 생활과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라고 했다. 프롬은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고독한 존재이며, 그 고독감과 공허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람은 사랑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랑은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나 대상에 따라 그 의미와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곧 사랑이 아닐까 한다.

우리는 자기가 과거에 사랑 받았던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각자가 사랑 받은 방식이 때로는 다소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랑이라고 느끼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미처 알지 못하는 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과 같은 행동양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선호하는 사랑의 양식을 이해하는 것, 나는 사랑을 전혀 다르게 표현하더라도 상대방이 나타내는 사랑의 행위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우리의 삶속에서 얼마나 사랑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실천하는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랑은 우리 삶의 중요한 원동력이다. 그래서 그 귀한 사랑이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인 애정(affection)을 나눔과 섬김의 사랑을 중심으로 비추어 볼 때 다음의 일곱가지로 나눔과 섬김의 실천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care”(돌봄)이다. 누군가를 돌본다거나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아주 자연스럽고 인간다운 일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과 소외된 계층에 대해 끊임없이 돌봄의 실천을 해야 한다.

둘째는 “giving”(나눔과 섬김)이다. 과거에 주었다거나 미래에 줄 것이 아닌 현재 계속하여 주고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다.

셋째는 “knowledge”(지식)이다. 돌보고 끊임없이 주는 일이 중요하나 이보다 어쩌면 그 대상(client)을 아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네째, “making”(만드는것)이다. 끊임없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사랑이다.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더 높고, 더 넓고, 더 깊은 차원의 사랑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자가 사랑을 유지할 수 있고, 만드는 것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랑은 창조적 소수로서 새벽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소중하게 보며

내안에 있는 소중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respect”(존경)이다. 겉과 속이 같은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한다면, 필요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존경심을 품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여섯째, “responsibility”(책임감)이다. 진정한 사랑은 진정으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더구나 오늘, 지금 책임을 져야 한다.

나눔과 섬김은 사랑의 실천이다. 나눔과 섬김은 사랑의 실천이다.

우리에게는 과거가 없고 내일이 없으며 오늘만큼만 살아갈 뿐이다.
일곱번째, “understanding”(이해)이다. 한번 이해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해는 계속적인 연결선상에 있어야 한다. 더구나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나눔과 섬김의 대상자 위치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가장 강한 힘은 섬기는 모습 속에 나오며 섬김을 통해 영원한 이김이 있다.
루터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만이 자기의 주체성을
확립한 사람이라고 한다. 복지의 영역은 이러한 나눔과 섬김으로서
새로운 비전과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사진은 재능대학교 실버케어복지과 학생들이 지난 11월 27일 지역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김장을 하고 있는 모습.
중동구 관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300여 가구에 김치를 전달했으며, (상) 하계방학을 이용해 태안 지역주민을 찾아
수지침을 놓아주는 등 따뜻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하)

가장 강한 힘은 섬기는 모습 속에 나오며 섬김을 통해 영원한 이김이 있다. 루터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만이 자기의 주체성을 확립한 사람이라고 했다. 복지의 영역은 이
러한 나눔과 섬김으로서 새로운 비전과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나눔의 온정으로 사랑의 온도를 올려주세요!

나눔의 온정으로 사랑의 온도를 올려주세요!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김민기

“ 그 어느때보다 나눔과 돌봄이 절실한 요즘,
나눔의 거울을 실천하는데 분주한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 11월 13일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다. 어느때보다 뜻깊은 한해인만큼
나눔의 진정한 의미를 되살리고, 어려운 시기에 기부가 힘이 되도록
연말연시 이웃사랑 캠페인에 여념이 없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민기 회장을 만나
세상을 바꾸는 나눔의 힘에 대해 들어보았다.

Q 우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르시더라도 ‘사랑의 열매’는 익히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그 ‘사랑의 열매’를 캠페인 상징으로 연말연시 뿐 아니라 연중 이웃돕기를 실천하는 단체입니다. 그간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불우이웃 캠페인을 이어받아 지난 98년 11월 특별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법정 모금·배분 전문기관입니다.

Q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올해 사업실적은 어떠한가요?

A 연말이긴 하지만, 아직 집중모금캠페인 기간이 남아있어서 정확한 모금실적을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12월 2일 기준 현재 모금액은 4,442,638,274원으로 2007년도 4,424,144,694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웃사랑의 마음을 조금만 더 보태주신다면 작년보다 많은 모금액을 기대해도 좋을리라 생각합니다.

Q 기부금은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A 사회복지사업을 펼치는 단체로부터 배분신청을 받아 사회복지전문가로 구성된 배분분과 위원회에서 공정성, 효율성, 투명성의 원칙에 의해 심의과정을 거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현장 방문 및 사업평가를 통해 지원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배분 지원신청 자격을 제한하거나 일부 환수하는 등의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Q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액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부문화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더라도 좀 더 발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전세계적으로 47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100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이제 10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금 1년 통계를 보면 80%가 기업, 나머지 20%가 개인 기부이지만 미국은 반대로 개인이 80%, 기업이 20% 기부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개미군단의 형식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모금회에서는 연말에 각 초등학교로 종이모금함을 보내서 자연스러운 기부 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습관화하도록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부는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태도와 습관화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될 때 기부문화도 점차적으로 변화할 것이고 정착될 것입니다.

Q 경기도 안 좋고, 기업도 힘든 요즘입니다. 이럴때일수록 기업의 기부문화도 확산되어야 하는데 인천의 기업 기부 현황 및 기부 확대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난호 보기

2008년 12월 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Q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기업들한테는 이웃과 함께 하는 기업, 이웃사랑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는 현판을 걸어주는 등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영포럼이나 경영자 협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자발적인 마음가짐과 참여가 선행되어야 진정한 기부문화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인천시민들이 손쉽게 기부할 수 있는 기부방법이나 새로운 기부대안을 소개해 주신다면...

A 시민들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랑의 계좌”와 “행복해지는 전화 ARS 060-700-1212”, “지하철 모금함 기부” 등이 있고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급여우수리기부”, “한사랑캠페인”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행복주주캠페인”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추천하여 최소 1주 “1004원”을 기부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신 분들은 “착한가게캠페인”들을 통해서 나눔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기업에서 생산되는 생필품을 기부하는 “물품기부” 역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단체나 모임에서 쉽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송년회기부”, “이벤트기부” 등을 준비하고 있어 인천시민들이 좀 더 쉽게 나눔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봉사나 기부가 갖는 의미나 사회적 파장은...

A 경제가 어렵고 날씨가 추워질수록 나 자신이 느끼는 어려움보다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두 배 이상 느껴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서로 조금씩이라도 나누는 문화가 더욱 절실합니다. 미국에서는 1달러를 기부하면 19달러의 사회적 이익이 발생하고, 사회결속 기능까지 합치면 엄청난 사회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분석에 따라 미국 주부들 사이에선 기부금이 가계부 지출에서 다섯 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기부는 사회에 대한 투자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기부라는 것이 단순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동정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나눔이며, 투자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Q 바람직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방법과 효율적인 홍보방법이 있다면...

A 인천공동모금회는 어릴적부터 기부문화에 익숙해져 성인이 되어서도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나눔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웃사랑동요를 제작하여 나눔교육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동요대회를 개최하여 아이들뿐 아니라 학부모까지의 관심을 유도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이웃사랑”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웃사랑그림그리기대회”를 개최하여 한 번 더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이웃사랑”을 주제로 영어말하기대회인 “이웃사랑영어옹변대회”를 개최하여 “영어”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두 가지 모두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회들이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러운 나눔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인천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국내 경제가 불황 장기화의 어두운 전망 속에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장애인, 노숙자 등은 점점 더 내몰리고 있고, 그 수는 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사회의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의 정성어린 관심과 지원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사랑의 온도탑이 1도씩 상승하는 나눔의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온정의 손길을 나누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인천사랑의공동모금회는
신세계백화점 광장에
사랑의 열매와 함께 사랑의 행복온도탑을
세우고 본격적인 '희망 2009 나눔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을 가졌다.

■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문화재단과 협약식



우리 연구원은 지난 11월 25일 인천문화재단과 협력 및 교류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우리 연구원과 재단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이번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지역문화 연구 및 관련 분야 연구, 지역문화 전문인력 및 연구자 양성, 인력의 교류 및 시설과 기자재의 공동사용, 문화예술 관련자료 및 정보 공유 등을 협력기로 했다.

■ 인천 행정부문 글로벌 능력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실시



지난 10일 우리 연구원과 인천광역시공무원교육원이 주최, 주관하는 인천 행정부문 글로벌 능력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토론회는 인천이 글로벌 도시발전을 기획, 추진하기 위해 행정부문 글로벌 전문성이 요구되는만큼 교육훈련 현황을 점검하고 각 영역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지난 11일, 건강한 직장문화만들기를 위한 전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이 있었다. 마을코칭리더십센터 경미숙 소장이 '성희롱 없는 일터, 즐거운 직장만들기'라는 주제로 사례별 성희롱 유형과 성희롱 성립요건, 예방법 및 관련법에 대해 강의했다.

■ 제50차 정기이사회 개최



우리연구원 제50차 정기이사회가 지난 16일 대회의실에서 열려, 2009년도 사업계획안, 예산안, 운영규정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 '도시재생사업의 사업방식 및 자원조달방법 개발' 학술세미나 개최

'도시재생사업의 사업방식 및 자원조달방법 개발'연구를 진행하면서 자원조달방법에 대한 기본방향 및 부문별 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의견을 수렴하고 PF(project financing)와 REITs의 자원조달방법에 대한 토론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지난 16일 우리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코람코 자산신탁 강승일 조사분석팀장이 주제발표에 나서 도시재생사업의 자원조달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 2020 인천 미래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2008년 워크숍

2020 인천 미래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2008년 워크숍이 지난 17일 공무원 교육원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가시화와 구도심재생의 활발한 사업 추진속에 2003년 작성한 인천 미래발전전략의 전면적 수정이 요구되는 바 분야별 미래발전전략 수립을 마련하고 내실있는 토론을 추진했다. 또한 전문가의 미래비전 제시를 통한 업무이해를 증진하고 컨설턴트를 포함한 T/F팀간의 충분한 대화로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양한 현안과제에 관한 행사정보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08년 12월 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 ◆[행사] 2009년 대내외 경제전망 세미나(12.1):대한상공회의소 02-6050-3443,4
- ◆[행사] '지식·혁신 주도형 녹색성장 산업발전전략'발표회(12.2):산업연구원 02-3299-3114
- ◆[토론회] 여성친화기업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12.2):한국여성정책연구원 02-3156-7168
- ◆[심포지움] 창조적 국토발전전략 심포지움(12.4):국토연구원 031-380-0114
- ◆[행사] 금융중심지지정통합설명회(12.6):인천광역시포함5개신청기관 032-453-7422
- ◆[행사] 동아시아 교통인프라 구축방안 세미나(12.15):한국교통연구원 031-910-3114
- ◆[포럼] 저탄소녹색성장국민포럼 제2차 정례포럼(12.23):에너지경제연구원 031-420-2114
- ◆[포럼] 미래예측과 국가미래전략 글로벌 포럼(11.13):한국정보사회진흥원
- ◆[콜로키움] '지역간 대중교통 진단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콜로키움(11.14):한국교통연구원 031-910-3114
- ◆[토론회] 인천국제공항 중장기 공항개발 계획 공개토론회(11.18):한국교통연구원
- ◆[토론회] '수변개발의 바람직한 방향' 전문가 토론회(11.20):서울시경개발연구원02-538-4596~7
- ◆[행사] 'FTA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경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세미나(11.28):경기개발연구원
- ◆[행사] 동아시아 교통인프라 구축방안 세미나(12.15):한국교통연구원 031-910-3114
- ◆[행사] 지능형 국토정책협의회(12.23):국토연구원 031-380-0114
- ◆[행사] 항만수요예측센터세미나(12.23):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수요예측센터 02-2105-2700

◆[행사] 2009년 대내외 경제전망 세미나(12.1):대한상공회의소 02-6050-3443,4 ◆
[행사] '지식·혁신 주도형 녹색성장 산업발전전략'발표회(12.2):산업연구원 02-3299-
3114 ◆[토론회] 여성친화기업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12.2):한국여성정책연구원
02-3156-7168 ◆[심포지움] 창조적 국토발전전략 심포지움(12.4):국토연구원 031-
380-0114 ◆[행사] 금융중심지지정통합설명회(12.6):인천광역시포함5개신청기관
032-453-7422 ◆[행사] 동아시아 교통인프라 구축방안 세미나(12.15):한국교통연구
원 031-910-3114 ◆[포럼] 저탄소녹색성장국민포럼 제2차 정례포럼(12.23):에너지
경제연구원 031-420-2114 ◆[포럼] 미래예측과 국가미래전략 글로벌 포럼(11.13):한
국정보사회진흥원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08년 12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12월의 인천역사

- * 1899년 12월 29일-일본제일은행 인천지점 준공
- * 1902년 12월 22일-제1차 하와이 이민 인천항 출발
- * 1918년 12월 29일-영미 연초공장 준공
- * 1922년 12월 13일-안창남 경인간 왕복비행 성공
- * 1945년 12월 31일-인천시 인구 212,207명
- * 1946년 12월 13일-인천시내전화번호 첫 발간
- * 1946년 12월 20일-인천해양대학 신입생 입학식
- * 1949년 12월 1일-인천시립 공익전당포 금곡동서 개업
- * 1949년 12월 26일-답동시장 개시
- * 1955년 12월 23일-인천시민의 노래 제정
- * 1961년 12월 18일-자매시추진위 미국 버뱅크시와 결연 의결
- * 1963년 12월 5일-팔미도 무선표지국 설치
- * 1971년 12월 17일-안하공대 종합대로 승격
- * 1974년 12월 20일-인천화력발전소 2호기 준공
- * 1974년 12월 31일-인천시내 차량대수 7,034대
- * 1975년 12월 26일-새얼강학회 첫 장학금 109명에 전달
- * 1976년 12월 5일-전국 실업고 평가서 최우수교에 인천여상
- * 1979년 12월 13일-인천공업대 인천대학으로 교명 변경
- * 1981년 12월 23일-간석지하차도 개통
- * 1982년 12월 14일-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 준공
- ▶ 인천항 개항 5년만에 만들어진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은 1882년 4월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조인된 한미수호통상조약체결을 기념하기 위해 백주년이 되는 1982년에 세운 것.
- * 1982년 12월 17일-유공 프로축구단 창단 인천에 전용구장
- * 1983년 12월 26일-인천국제자동차터 개통
- * 1985년 12월 9일-구월동 인천시 새청사 개청
- * 1986년 12월 28일-대우자동차 르망 대미수출 인정서서 선적
- * 1987년 12월 9일-강화도~동검도간 연육도로 준공
- * 1988년 12월 2일-계양 영종 용유면 인천시 편입 확정
- * 1990년 12월 1일-인천시립극단 창단 기념공연
- * 1991년 12월 24일-인천~천진간 카페리항로 천인호 취항
- * 1991년 12월 29일-인천~천진 천인호 취항 축하식
- * 1992년 12월 29일-인천~백령간 쾌속선 취항식
- * 1993년 12월 3일-새얼 향해문화 창간축하회
- * 1993년 12월 7일-인천~천진 자매결연 조인
- * 1993년 12월 9일-선화선박 최신행예선 127톤급 인천항 투입
- * 1994년 12월 22일-핵폐기장 굴업도 확정
- * 1994년 12월 5일-인천서도 여권 발급
- * 1994년 12월 7일-강화여객자동차터미널 기공

12月

* 1995년 12월 22일-인천항물동량 1억톤 돌파선박 입항

* 1995년 12월 7일-영종신공항 고속도로 기공

* 1997년 12월 29일-2002 월드컵 개최지 인천 확정

* 1998년 12월 17일-인천도시철도 1호선차량 첫 반입

* 1999년 12월 18일-대우차 정상화 시민축구대회

* 1999년 12월 31일-실업극복 인천본부 대통령 표창

* 2001년 12월 2일-문학경기장 개장

▶1994년 7월 착공하여 2001년 12월 2일 개장하였다. 전국체육대회를 치르기 위하여 건설하던 도중

1996년 6월 30일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한·일 공동개최가 결정됨에 따라 월드컵 개최를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였다. 부지면적 44만 1628㎡이며, 사업비 3,266억 원이 투입되었다.

****위의 내용은 인천일보사 발행 [인천연감] 인천사연표에서 부분 발췌수록한 것임

인천항 개항 5년만에 만들어진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은 1882년 4월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조인된 한미수호통상조약체결을 기념하기 위해 백주년이 되는 1982년에 세운 것. 뜻을 형상화한 8개탑은 인간, 자연, 평화, 자유를 뜻하며 양국간의 유대와 결속을 나타낸다.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08년 12월 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방치된 항구에서 세계3대 미항으로 변모한 시드니 달링하버

도시계획교통연구실 기윤환 책임연구원

방치된 항구에서 세계3대 미항으로 변모한 시드니 달링하버



시드니 달링하버는 당초 시드니의 주요 항만이었으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시드니시가 외연적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인접한 신항만으로 기능이 이전되면서 항구의 기능을 잃고 범죄와 심각한 환경훼손 뿐인 황량한 지역으로 전락하였다.

1980년대 호주경제의 호황으로 황량한 땅인 25만㎡의 달링하버 재개발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어 1984년 주정부의 주도하에 2000년 시드니올림픽을 목표로 재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1984년 5월에 달링하버공사를 구성하고, 6월에 달링하버공사법이 제정되면서 개발계획 및 전략 초안이 1984년 겨울 공람되었으며, 이듬해 8월 첫 번째 개발계획이 완성되었고, 1988년 1월에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다. 그 결과, 현재의 달링하버는 태평양과 시드니를 연결하는 관문으로서 신대륙을 상징하는 복합단지로 자리매김하였다.

개발 방향에 대하여 시드니 시청과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는 회의를 거듭했고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가져 시민은 엔터테인먼트와 액티비티 컨셉을 요구하였으며, 시와 주정부는 업무·상업·문화를 혼합한 복합단지개발컨셉을 제안하였다. 개발비용은 주정부 9억5천만 호주달러, 민간기업 14억3천1백만 호주달러를 투입되었다. 주정부와 민간기업의 자본투입방향의 경우 주정부는 컨벤션센터, 전시관, 퍼몬트대교, 예술관, 국립해양박물관, 시드니 박물관 등에 투입되었으며, 민간기업은 페스티벌마켓, 모노레일(달링하버~시드니 도심간 운행), 수족관, 스포츠센터, 아이맥스(IMAX), 세가(Seга)월드와 노보텔, 아이비스, 니코, 2천3백50여 객실을 갖춘 6개 호텔 등에 투입되었다. 그 외에 호주 유일의 카지노와 7개의 대형 레스토랑, 1백50개 상점과 자동차 6천대 수용 규모의 지상주차장도 건설되었다.

이러한 재개발사업은 자금조달에서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는 개발사업전반에 대한 전권을 가진 달링하버 위원회(DHA)가 주정부 관계법령에 의해 조직되어 독립기구로서 각종 시설물의 임대 및 행사유치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여 일관성있게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외국자본을 과감하게 유치하여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높혀 1984년 개발에 착수하여 1988년 1월 16일에 달링하버의 골격을 완성시켰다.

달링하버의 경제효과는 고용창출 3,800여명, 시드니 시민들이 1년에 달링하버를 찾는 횟수는 1인당 평균 8회, 한해 평균 1,000건이나 되는 이벤트 행사(하루2.7건), 달링하버로 유인되는 관광객(비즈니스 포함)은 1년 평균 2,500여 만명(시드니 시민 70%, 타 지역거주 호주인 23%, 외국인 관광객 7%이며 증가 추세), 외국인 1일 평균 소비비용은 609 호주달러로 일반인들이 소비하는 액수의 7배를 상회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처럼 DHA는 상업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복합단지가 갖는 다양한 특성을 살려 상품화하였으며, 국제회의 및 도시축제 등 각종 이벤트를 유치하여 시드니를 세계적인 미항으로 발전시켰으며, 시드니 경제를 부흥시키는 많은 이익을 창출해냈다는 점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재개발 전후의 달링하버 전경〉



〈현재의 달링하버 전경〉

REFRESH



달링하버는 상업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복합단지가 갖는 다양한 특성을 살려 상품화하였으며, 국제회의 및 도시축제 등 각종 이벤트를 유치, 시드니를 세계적인 미향으로 발전시켰고, 시드니 경제를 부흥시키는 많은 이익을 창출해냈다.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08년 12월 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광역시 중기 지방세수 추계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현행 제도상 지방자치단체는 먼저 세입규모를 추정하고 그 규모에 상응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방세수 규모의 예측은 세입 규모를 추정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이며, 선행되어야 할 일차적 작업이나, 지방세수 추계에 관한 관심과 연구 성과는 미흡한 실정임.

○ 인천광역시의 경우, 2009 도시엑스포, 2014 아시안게임 및 도시재생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계획·진행하고 있어 중장기적 재정운영에 관한 계획수립과 이에 입각한 건전재정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보다 정확한 지방세수 예측을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지방세수 추계방법들을 검토·고찰하여 인천광역시의 세수 예측에 가장 적합한 세수 추계 방법을 제시하고, 그 방법을 이용하여 인천광역시 중기 지방세수를 추계하고자 함.

□ 추계모형 선정 및 모형별 세수 추계

○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세수 추계모형을 이용하기 위하여 ① 세수 추계의 정확성, ② 세무담당공무원의 실무 적용 용이성 및 ③ 단기간의 자료만을 이용한 분석 가능성을 모형 선정의 기준으로 함.

○ 이상의 선정 기준을 지방세수 추계 모형 및 선행연구 검토 내용에 적용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진도비 모형, 조정진도비 모형, 탄력성 모형 및 이동평균법 모형(3개년도 및 5개년도 이동평균법)을 사용함.

○ 선정된 5가지 모형을 이용하여 2008~2015년도의 인천광역시세 규모를 추계한 결과, 가장 적은 추계치를 보인 것은 진도비 모형으로 2015년도의 인천광역시 세수를 2조 9,632억원, 탄력성 모형은 3조 4,904억원, 조정진도비 모형은 3조 9,535억원, 3개년도 이동평균법은 5조 7,151억원, 5개년도 이동평균법은 4조 4,760억원으로 추계되었음.

■ 인천광역시 모형별 세수 추계

(단위 : 억원)

구분	진도비 모형	조정진도비 모형	탄력성 모형	3개년도 이동평균법	5개년도 이동평균법
2008	21,059	21,831	21,494	22,803	21,662
2009	22,112	23,764	23,036	25,916	23,731
2010	23,217	25,868	24,688	29,714	26,515
2011	24,378	28,159	26,458	33,875	29,513
2012	25,597	30,652	28,356	38,652	32,890
2013	26,877	33,366	30,389	44,161	36,314
2014	28,221	36,320	32,569	50,396	40,267
2015	29,632	39,535	34,904	57,532	44,769

□ 모형별 오차를 비교

○ 세수 추계 모형의 예측도 분석을 위하여 과거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모형별 추계치를 산출하고 인천광역시 세수의 실제 결산액(징수액)과 비교하기 위하여 2004년도를 추계 기준년도로 오차율을 비교해 보면, 5개년도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추계된 값이 실제 징수액에 가장 근접한 값으로 나타남.

〈표 1〉 2004년도 기준 모형별 추계 오차율

구분	2005	2006	2007
예산액 대비	0.69	1.21	6.52
진도비 모형	-8.47	-12.97	-21.64
조정진도비 모형	-4.89	-6.30	-12.54

탄력성 모형	-6.87	-9.55	-16.87
3개년도 이동평균	-6.61	-14.11	-25.05
5개년도 이동평균	-0.30	1.85	-4.72

□ 인천광역시 중기 지방세수 추계 결과 : 정책건의

○ 이상의 분석 결과, 인천시 광역시세를 추계함에 있어서는 5개년도 이동평균법이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되어지며, 5개년도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추계된 인천시 광역시세 규모는 2008년도 광역시세는 2조 1,662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인천광역시 세수는 연평균 10.75% 증가하여 2012년도에는 3조원, 2014년도에는 4조원을 넘는 규모가 되고, 2015년도에는 4조 4,769억원에 달 할 것으로 예상되어짐.

〈표 2〉 인천광역시 중기 지방세수 추계

(단위 :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지방세	21,662	23,731	26,515	29,513	32,890	36,314	40,267	44,769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보다 정확한 지방세수 예측을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지방세수 추계방법들을 검토·고찰하여 인천광역시의 세수 예측에 가장 적합한 세수 추계 방법을 제시하고, 그 방법을 이용하여 인천광역시 중기 지방세수를 추계하고자 함.

인천지역 산업구조 특성과 산업연관분석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급변하는 대내외적인 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바람직한 지역경제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지역경제의 현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지역경제의 성장추이, 산업구조, 성장요인, 산업간·지역간 연관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인천지역경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여기서 인천경제의 산업구조는 경제기반모형과 변이할당모형을 통해 분석하였고, 산업간·지역간 연관관계는 한국은행 인천본부(2007)에서 작성한 '인천지역 산업연관표'를 적용한 산업연관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 인천경제의 산업구조 특성

인천시의 GRDP는 1995년 이후 연평균 3.11% 성장하여 2005년 현재 약 33조 2,193억원(2000년 불변가액 기준)으로 증가하여 우리나라 GDP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경제구조는 농림어업 0.84%, 광업·제조업 22.18%,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71.98%로 다른 광역시에 비해 광업·제조업의 구성비는 높지만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의 구성비는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 제조업은 1995년 이후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제조업은 중소기업의 영세한 저부가가치형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천경제의 주력 제조업은 기계 및 장비, 제1차금속, 조립금속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음식료품 등이며, 최근에는 첨단산업 관련 업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인천시 서비스업은 연평균 3.95% 성장하여 인천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등이 주요업종이며 특히, 운수업의 구성비가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비중은 다른 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보다도 낮아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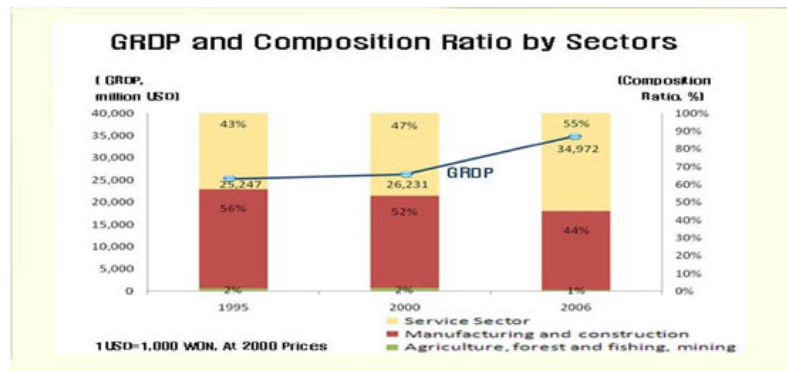
□ 인천경제의 산업간·지역간 연관구조 특성

인천지역 재화의 생산구조는 중간재 투입비중이 높고 부가가치율은 낮은 편이며, 재화의 배분측면에서는 지역내 총수요에서 중간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이다. 또한 인천지역의 해외의존도는 다른 지역보다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역간 교역에 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인천지역 생산품의 32.5%는 다른 지역으로 이출되며 이중에서 53.0%는 서울·경기지역으로 이출되고 있다. 또한, 지역내 수요의 31.1%가 다른 지역에서 이입되며, 이중에서 47.9%는 서울·경기지역으로부터 이입되고 있어 인천지역은 서울·경기지역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인천지역의 생산유발계수는 수송장비, 일반기계 등 지역의 주력 제조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가가치유발계수는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금융 및 보험 등 서비스업이 크고, 고용유발계수는 도소매, 사회 및 기타서비스 등 서비스업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유발의존도와 생산유발률의 의하면, 인천지역의 생산액은 기타지역보다 서울·경기지역의 최종수요에 더 크게 의존하고, 인천지역의 최종수요는 서울·경기지역 보다 기타지역의 생산액을 더 많이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재화의 생산과 판매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간 연관성을 나타내는 지역간 전·후방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인천지역은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기타지역으로부터 중간재를 더 많이 구입하고 생산한 재화는 서울·경기지역으로 더 많이 판매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등이 주요업종이며 특히, 운수업의 구성비가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비중은 다른 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보다도 낮아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변하는 대내외적인 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바람직한 지역경제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지역경제의 현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지역경제의 성장추이, 산업구조, 성장요인, 산업간·지역간 연관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인천지역경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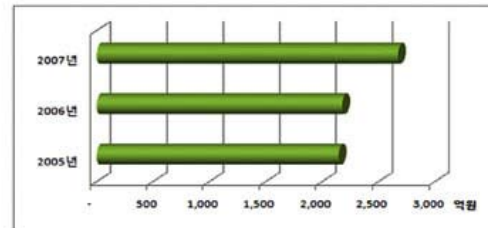
지난호 보기

2008년 12월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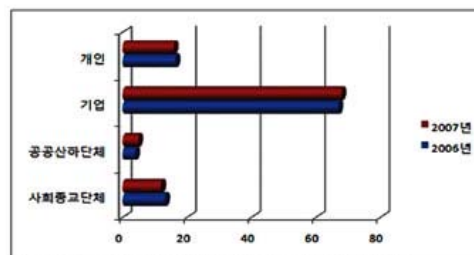
웹진 구독신청하기

지표를 통해 본 인천 : 나눔 분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2007년 총 모금액은 약 2,673억원으로 2006년 2,177억원에 비해 22.8% 증가한 것으로서 총 798,809건(기업, 단체, 개인 포함, ARS 등의 방송모금, 이벤트 모금 단체명의로 기부한 경우 각각 1건으로 처리)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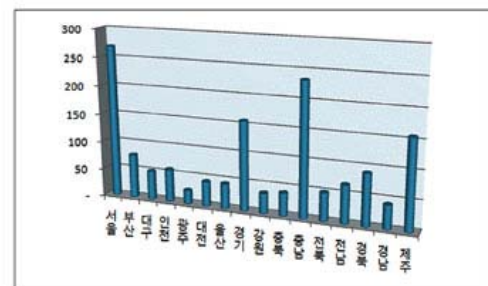
[그림] 2005-2007년 모금총액



[그림] 2006-2007년 기부자 유형별 기부액 규모(단위: 억원)

기부자 유형별 참여 건수를 살펴보면, 개인이 669,663건, 기업 49,126건, 공공산하단체는 14,862건, 사회 및 종교단체의 경우 65,158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기부규모는 기업이 67.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개인이 15.7%, 사회 종교단체가 11.8%, 공공산하단체가 4.7%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은 중앙회와 지회로 구분하여 이루어진다. 2007년 모금액 기준으로 중앙회는 1,228억원을 모금하였으며, 지회는 1,445억원을 모금하였다. 지회별 모금액을 살펴보면, 서울이 26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이 234억원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경기도는 158억원, 제주도는 157억원을 모금하였고, 인천은 58억원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여덟번째로 중간 수준의 모금결과를 보였다.



[그림] 지회별 모금액 비교

보사기부 영역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지역주민 1인당 모금회 기부액을 비교하면, 서울이 2007년 기준으로 주민 1인당 2,638원을 기부하였으며, 부산은 2,152원, 대구는 2,042원, 인천은 2,163원을 기부하였다.

[표] 지역주민 1인당 모금회 기부액

구분	지역주민 수	총모금액(백만원)	주민 1인당기부액
서울	10,192,710	26,893	2,638
부산	3,587,439	7,719	2,152
대구	2,493,261	5,090	2,042
인천	2,664,576	5,764	2,163

자료: 각 지회 홈페이지

인적 기부로서 자원봉사 영역을 살펴보면, 전국의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여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수는 총 1,031만 4천 903명에 이른다. 활동 영역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 영역이 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환경보호 영역 10.2%, 교통·기초시설 영역 6.3%이나(행정자치부, 2008). 이는 2005년의 자원봉사활동의 영역별 비율인 보건복지 36%, 환경보호 21%, 교통·기초시설 9%와 비교해 볼 때(행정자치부, 2006) 보건복지 및 환경 분야 등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다양한 영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권현진 2008). 지역주민 대비 자원봉사자수 비율을 보면 서울은 지역주민 대비 13.4%, 부산은 12.3%, 대구는 12.8%, 인천은 18.2%로 등록자원봉사자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지역주민 대비 자원봉사자수 비율

구분	지역주민수(A)	등록자원봉사자수(B)	등록자원봉사자수비율(B/A)
서울	10,192,710	1,369,255	13.4%
부산	3,587,439	440,482	12.3%
대구	2,493,261	319,941	12.8%
인천	2,664,576	484,381	18.2%

자료: 권현진(2008). 43쪽 재구성

자료: 200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간보고서, 각 지회 홈페이지,
권현진 외(2008) 인천광역시 메가이벤트를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인천발전연구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사업실적을 살펴보면, 2007년 총 모금액은 약 2,673억원으로 2006년 2,177억원에 비해 22.8% 증가한 것으로서 총 798,809건(기업, 단체, 개인 포함, ARS 등의 방송모금, 이벤트 모금 단체명으로 기부한 경우 각각 1건으로 처리)으로 나타났다.

지표를 통해 본 인천 : 돌봄 분야

도시경영연구실 권현진 책임연구원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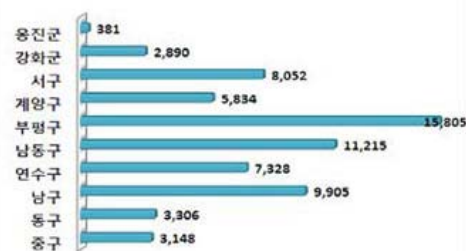
지난호 보기

2008년 12월 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지표를 통해 본 인천 : 돌봄 분야

기초생활수급자현황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2008)

보건복지가족부(2007)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는 총 155만명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률은 3.2%이다. 인천광역시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수는 2008년 7월 현재 총 6만7,864명으로 인천인구의 2.52%에 해당한다. 군구별로는 부평구가 1만5,805명의 수급권자가 거주하고 있어 가장 많은 구이며, 남동구, 남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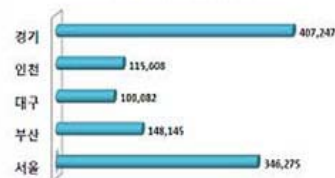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2008)

인천광역시의 전체인구 중 노인 인구의 비율은 7.69%로 전국 평균인 9.2%보다는 낮은 편이다. 그러나 강화군과 옹진군은 농·어촌 지역으로서 노인인구의 비율이 20%에 이르고 있어 고령사회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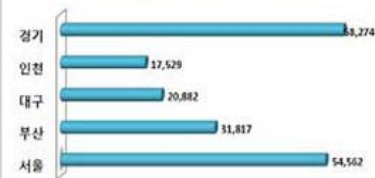
통계청(2008)에 의하면 인천의 장애인 등록자 수는 11만 5,608명으로 인천인구의 4.16%에 해당한다. 인천광역시는 타 시·도에 비하여 등록 장애인의 비율이 매우 높은 도시이다. 인천광역시의 장애수당 수급자는 1만 7,529명으로 장애인 등록자의 15.2%가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장애인 등록자 수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2008)

장애수당 수급자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2008)

군·구별 장애인거주 현황을 살펴 보면, 부평구에 2만 2,806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남구, 남동구, 서구, 계양구, 연수구에는 1만명 이상의 장애인이 각각 거주하고 있다.

군구별장애인현황



자료: 인천통계연보(2007)

인천시의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총 9,011가구이며, 가구원 수로 보면 2만 4,243명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군·구별 거주현황을 보면 부평구, 남동구, 남구, 서구, 계양구에 각각 천 가구 이상으로 대다수의 한부모구가 집중되어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인천통계연보(2007)

인천시 소년·소녀가정은 총 110명이며 61명의 세대주와 49명의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학형태를 보면 초등생 17명, 중학생 30명, 고교생 58명, 기타 5명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소년·소녀가정현황

계 소계	세대주 소계	세대원 소계	재학별 (명)				
			미취학	초등	중학	고교	기타
110	61	49	-	17	30	58	5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2008)

인천시 요보호 아동은 총 396명으로 발생유형을 보면 기아 8명, 미혼모아동 62명, 비행·가출·부랑아 4명, 빈곤·실직·학대 등 기타 317명이다. 요보호 아동의 대부분은 위탁보호를 받고 있다.

인천시 요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내용

계 소계	발생유형 (명)					보호내용					
	기아	미혼모아동	미아	비행·가출·부랑아	빈곤·실직·학대 등 기타	아동	장애아	미혼모	위탁보호	입양	소년·소녀가장정책
396	8	62	5	4	317	146	-	-	208	18	24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2008)

<참고문헌>

인천광역시(2007). 제47회 인천통계연보.
 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보건복지가족부(2007)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 중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수는 총 155만명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률은 3.2%이다. 인천광역시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수는 2008년 7월 현재 총 6만 7,864명으로 인천인구의 2.52%에 해당한다. 군·구별로는 부평구가 1만5,805명의 수급권자가 거주하고 있어 가장 많은 구이며, 남동구, 남구의 순으로 나타났다.